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중독 X-파일

그것이 알고싶다

- 현장보존 4단계 수칙 -

“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”

식중독이 의심되면
식중독균이 사라지기 전
꼭! 먹었던 음식, 구토물 등을 보관하세요!

Why? 항생제를 복용하면 식중독균도 죽어버리기 때문에
식중독 여부 확인이 어려워요!

『현장보존 4단계수칙』

1단계

식중독이 의심되면
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해요.

※ 식중독 증상 : 구토, 설사, 복통 등

2단계

먹은 음식이 이상하면
음식물이나 구토물을

비닐봉투에 보관하세요.



3단계

의사 · 환자는 식중독
의심사건을 보건소나

1399로

신고하세요.



4단계

보건소와 위생부서 등이 조사를
시작하면 적극 협조해 주세요.



기관별 조사항목

■ 보건소

- 의심환자 **설문조사**
- 인체검체(분변, 혈액 등) 채취 등 **역학조사**

※ 조사항목 : 2~3일간 먹은 음식물 이력조사, 구토물, 채변 분석

■ 위생부서

- 조리시설, 식재료, 환경(도마, 칼, 행주) 등 **원인조사** 실시
- 확산방지를 위한 **소독** 실시

▶ 식중독 원인이 밝혀지면 **행정처분** 실시



식중독이 의심된다면
“현장보존 4단계” 수칙으로
건강한 식탁을 지켜내고
식중독 확산을 막아주세요.